

최 “교통망 확충” 정 “지역 맞춤형사업”

6·13지선강원경제 공약 점검①

⑥ 강원 SOC·건설산업 활성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축소기조로 강원건설산업이 위축되면서 도로와 공공시설물 등 도민 건설복지도 뒷전으로 밀렸다. 정부가 대규모 건설 투자보다는 도시재생 등 복지형 건설투자에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지난해 강원도 건설수주액은 4조6679억여원으로 전년 대비 9.8% 감소했다. 같은기간 전국 건설수주액 감소폭(3.1%)의 3배를 넘는 등 건설경기가 타 시도보다 빠르게 침체되고 있다.

도 건설수주 전년비 9.8% 감소

SOC 축소기조에 건설경기 타격

최, 경원선 복원·KTX 동해 연장
정, 도시재생 등 지역개발 중심

또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체들이 저가 공사에 뛰어드는 등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도내 전문건설업계 실적 1~3위가 공사수주를 위해 타 시도로 빠져나가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건설산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도지사 후보는

‘강원권 고속도로·철도 교통망 확충’을, 자유한국당 정창수 후보는 ‘지역별 맞춤형 사업 추진’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문순 후보는 △남북교류를 위한 경원선 철도복원·KTX 강릉선 동해 연장 △동해 고속국도 건설 등 교통망 개선을 통해 침체된 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SOC사업 추진과 더불어 KTX 동해 연장, 춘천~철원 고속도로 개설, 동해안 고속국도 건설 등을 추진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건설업 호황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정창수 후보는 △접경지역 SOC 확충 △경기 양평군 지평~남원주간 수도권

전철 사업 △폐광지역 도시재생 사업 등을 공약으로 내놓는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SOC 사업은 필요한 사업만 선택해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대규모 건설공사는 지양하고 도시재생 사업 등 지역개발 중심의 사업을 펼쳐 건설업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주민들을 위한 건설사업 확대는 건설업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교통망 개선과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만큼 중요한 것은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확보”라고 말했다.

신관호

公共발주 본격화에 특정공법 적용공사 증가

지난달 10억 이상 물량 중 97건
토목-시설물-건축-상하수도 순

공공공사 발주가 본격화하면서 특정공법 적용 공사도 함께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달 추정금액 10억원 이상 공사 발주와 특정공법 적용 공사는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4월 (건설경제)가 나라장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10억원 이상 공사는 총 582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신기술·특히 등 특정공법이 적용된 공사는 97건으로 집계됐다.

특정공법 적용 공사는 1월 54건(386건·이하 총 발주공사), 2월 51건(383건), 3월 58건(490건) 등으로 1분기에는 50건대에 머물렀으나, 4월 73건(467건)으로 늘어나고 지난달에는 100건에 육박한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특정공법 확인이 어려운 서울시설공단 수요의 '2018 홍제천교 가교 교면포장 정비공사'는 제외됐다. 이 공사까지 포함하면 특정공법 발주공사는 98건에 이른다.

특정공법이 적용된 97건의 공사를 분야별로 나누면 역시 토목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 지역에서 크고 작은 도로 건설공사들이 쏟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어 시설물(28건), 건축(11건), 상하

주요 특정공법 반영 업체

반영건수 업체명

5 죽암건설

4 한미엔텍, 팜스코건설, 에스코알티에스, 삼우아이엠씨, 메리츠테크놀로지, 로맥스엔지니어링, 디에이치케이, 동해, 동양R.PF산업

3 한창이엔씨, 코리아에스이, 창가비엔텍, 이주산업, 에코스코리아, 신화, 매크로드, 로드캐스트

2 효성엘비테크, 효성, 호산이엔씨, 한토산업, 한주에스티, 하이텍코리아, 태화이엔지, 태정산업개발, 케이디교역, 진형건설, 지엘기술, 자벽, 일소환경복원, 이레하이테크이엔씨, 은일, 유주, 우경건설, 예도컨스텍, 엘에스지, 에스원건설, 에스엔씨산업, 이람, 승화플랜트산업, 스톱코리아, 비티엠이엔씨, 비엔테크, 브릭텍, 부국토건, 리누시스템, 로드셀, 대현이엔씨, 대전종합기술, 대전종합건설, 대보하우징, 금영토건, 가인

수도(8건), 전기(8건), 항만(2건) 순으로 나타났다.

97건의 공사에 적용된 특정공법은 모두 235건(중복 포함)으로 집계됐다. 공사당 평균 2.42건이 적용됐다.

특정공법이 가장 많이 적용된 공사는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수요의 '국도5호선 춘천~화천2 도로 건설공사'로 총 21건이 적용됐다.

같은 날에 발주된 '국도5호선 춘천~화천1 도로 건설공사'에도 20건이 적용됐고, '국도5호선 춘천~화천3 도로 건설공

사'에는 10건이 적용됐다. 3개의 공사에 적용된 특정공법은 모두 51건으로 전체의 21.7%를 차지했다.

235건의 특정공법을 공법별로 나누면 교량이 32건(1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처리(20건·8.51%) △보수보강(18건·7.65%) △방수(15건·6.38%) △포장(13건·5.53%) △전기(9건·3.38%) △옹벽(9건·3.38%) 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 신기술은 건설(18건), 전력(9건), 환경(5건), 방재(3건) 등을 포함해 총 35건(14.89%)를 기록했다. 신기술 중에선

'배전공사용 다기능 다선 가선공법(전력신기술 제9호·개발자 동해)', '더블브레이드 드롭과 3드립 선출 장치를 이용한 케이블 포설공법(전력신기술 제69호·디에이치케이)' 등 2건의 전력신기술이 공동으로 최다 공사 적용(4건)의 영광을 안았다. 건설 신기술 중에서는 삼우아이엠씨의 '슬래그 잔골재 치환 초속경 LMC를 전용장비로 시공하는 교면 및 콘크리트 포장 유지보수 공법(SMAT-CON공법·제665호)'이 2건의 실적을 올렸다.

정희훈기자 hoony@

2018년도 5월 특정공법 적용 현황

	총공사	특정공법적용공사
1월	54	386
2월	51	383
3월	58	490
4월	73	467
5월	97	582

특정공법 분야별 적용 현황

(단위: 건수, 추정금액 10억원 이상)

토목	40
시설물	28
건축	11
상하수도	8
전기	8
항만	2

세부공종별 적용 현황

교량	32
수처리	20
보수보강	18
방수	15
포장	13
전기	9
옹벽	9
조경	8
관로	8
패널	7
앵커	7
신축이음	7
총	235건

죽암건설, 5월 특정공법 5건 적용 '최다'

9개사 '4건', 8개사 '3건'
공법 쏠림현상 크게 줄어

수처리 및 환경 관련 전문기업 죽암건설이 5월의 최다 특정공법 적용업체로 조사됐다.

4월 (건설경제)가 나라장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특정공법이 적용된 공사 97건(추정금액 10억원 이상)에는 총 151개 업체의 신기술 및 특허가 반영됐다. 2건 이상의 복수 특정공법을 반영한 업체는 총 54개사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특정공법을 반영한 업체는 죽암건설이다. 경기도 양평군 환경사업소 수요의 '양평 공공하수처리

시설 건설공사'에만 '액이송·교반·폭기 장치를 이용해 반응조들간의 교대 혼합을 유도한 하·폐수고도처리기술(검증 환경신기술 제172호)' 등 5건의 특정공법을 적용시켰다.

이어 4건에는 여러 업체들이 이름을 올렸다. 한미엔텍, 팜스코건설, 에스코알티에스, 삼우아이엠씨, 메리츠테크놀로지, 로맥스엔지니어링, 디에이치케이, 동해, 동양R.PF산업 등 9개사가 포진했다.

이 중 전력 전문업체인 디에이치케이와 동해를 제외한 삼우아이엠씨가 여러 프

로젝트에 공법을 반영해 눈길을 끌었다. 건설신기술 2건(제665호)을 반영시킨 포장 전문업체 삼우아이엠씨는 '국도31호선 유강램프1교 교면 재포장공사', '국도43호선 성암대교 교면포장 보수공사', '김포공항 콘크리트 포장보수공사' 등에서 자사의 기술을 뽐냈다.

3건을 반영시킨 업체로는 한창이엔씨, 코리아에스이, 창가비엔텍, 이주산업, 에코스코리아, 신화, 매크로드, 로드캐스트 등 8개사로 나타났다. 이 중 한창이엔씨, 창가비엔텍, 이주산업, 에코스코리

아, 신화 등은 3건을 모두 다른 공사에 적용시켰다.

보통 최다 적용업체가 9건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달에는 절반으로 줄어든 모습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사가 많이 발주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10억원 이상 공사가 582건이나 발주됐지만 몇몇 토목공사를 제외하면 큰 공사는 없었다"면서, "시설물 등 공사 분야가 다양성을 띤 것도 공법의 쏠림현상을 방지했다"고 분석했다.

정희훈기자